

세움위원회 워크샵

2023년 8월 26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301호

참석자: 위원장 조윤준 장로, 김유석 목사, 임진실 목사, 최준호 목사, 오순도 장로,
임병익 장로, 전종욱 집사, 이석재 장로, 박옥현 집사, 최승민 장로, 송영상 장로,
유철 집사, 원성수 집사 13명

1부 개회예배

사회 유철 집사

사도신경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시작기도 이석재 장로

말씀 "새 일을 행하라" 김유석 목사

이사야서 43장 18절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1867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소련으로 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아주 넓은 땅이지만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이어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고 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가서 보니 금과 은은 물론이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존슨 대통령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갈채를 보내고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역사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성경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런 식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고 죄인
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경험은 누구라도 감격하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넘어, 또 노년의 어려움을 넘어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기적인데 장애를 넘고 또 어려움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은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새 일을 하고 계십
니다.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드신 뒤에 알아서 하라고 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인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 죄인의 삶, 죄를 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셨는데 아직도 죄를 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죄인의 삶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난 날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일 때 행했던 일들, 죄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첫 단계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우리가 지난 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새 일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고 이 말씀은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우리를 어렵게 만든 여러 상황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다 잊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지난날에 반복되었던 죄성이라면 과감히 빠져나와야 하고 만약에 바벨론 같은 어려움이었다면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많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삶속에서 행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패배란 없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세움위원회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 기도 김유석 목사

주기도문

2부 워크샵 행사 사회 송영상 장로

소망부

오순도장으로

소망부 대상이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은퇴하신 성도로 범위를 넓혀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별 100% 출석 시상을 도입하여 축하의 시간을 통해 참여의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360만원은 월 30만원으로 1인당 2천원씩 150명을 대상으로 12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온찬양대원이 40명 정도되는데 가운데 낡아서 교체를 원했는데 행정위원회 예비비를 통해 새로 구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랑부

임병익 장로

장애일주일을 올해 5월 21일 실시했는데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통해 교회내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를 얻었고 주일1부예배와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암송을 실시하여 예배 공동체임을 확인함
금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낮췄다면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에 초점을 맞춰 번갈아 진행할 예정임

여름 수련회는 장애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 수련회를 통해 장애인이 어려워하는 기도훈련을 시도하여 기도의 문을 열었고 사랑부 성도들과 부모교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

성도들의 요청으로 내년부터는 겨울 수련회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임. (수련회 예산 800만원 증액)

6월과 8월에 있었던 부모수업 모임을 통해 고통받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소그룹을 통해 부모들끼리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2024년도에도 매월 1회이상 14회 정도를 계획중임.

전문가 자문팀이 발족하여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찰하여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찬양팀을 설립하여 성도들의 나이에 맞는 성년의 찬양팀으로 발전시키려 함. 다양한 악기와 찬양을 통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자 함. 악기구매 필요.

이번 수련회에 악기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경험함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에 참여하기로 함. 개도국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팀 구성예정

현재 사무엘반과 다니엘 반으로 나뉘어 있는 예배를 나이별로 분반하여 아동청소년 반과 성인반 등으로 분반하여 등반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배도 9시, 11시 오후1시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9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함. 추가 교역자 필요.

위원장 조윤준 장로

기존에 기도원에서의 수련회가 사랑부 지체들이 1박2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에 합쳐서 1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실시했는데 다시 여름, 겨울을 하게 되면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잘 숙고하시고 찬양대의 악기구입은 부서의 예산이 아니고 교회의 기물로 등록해야하는 일이니 계획을 잘 짜셔서 관련부서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분반문제는 과거에 교역자가 두분 계실 때 연령대로 구분하여 2반으로 시행되다 목사님 1분이 사역하게 되어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아동반, 청소년반, 성인반으로 나누어 시간대를 달리하여 예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교역자를 1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담임목사님과 사전에 의논하시고 타부서와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사랑부의 예산은 다른 교회학교 부서에 비해 약간 넉넉한 비용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바다부

전종욱 집사님

2023년에 실시된 사역중에 장애인 주일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 작품전시회를 진행하여 농인들의 숨씨를 자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청인들과도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음.

개선할 점은 이번에는 예바다부 성도들의 작품 위주로 전시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사랑부에서도 같이 참여하여 전시되면 좋겠음.

농인들이 통성기도 할 때 말씀을 못하셔서 원할하게 기도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봉사자들을 통한 찬양팀과 함께 통성기도훈련을 시도하여 뜨거운 성령 체험의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청인 성도님들은 통성기도할 때 자기들이 내는 소리가 일반 성도와 다르다고 생각하며 맘껏 표현을 못하는데 악기와 찬양을 통하여 자기소리가 묻히면서 맘껏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바다부에서도 찬양팀을 신설하여 악기와 찬양을 통하여 통성기도를 점점 늘려가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어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오래전에 만들어져 절판된 교재여서 예바다부 내부에서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바다부 상황과 수어교일 운영에 적합한 교재를 통해 수어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어 교실을 통해 농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어 교실에 참

여한 분들이 에바다부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제제작비 225만원 총3권제작

2024년도에는 수어 교재 제작이 완성된 초급반 교재에서 중급반 성장반으로 확대 제작하려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1년 52주 5년동안의 커리큘럼인데 현재 에바다부 성도님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지만 전국의 농인 교회에 제공하여 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1년네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 송영상 장로님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 이런 것을 로드맵을 가지고 당회에 발표하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준 장로

에바다부를 보면 농인이니까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양 팀을 만드신다는 거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찬양은 귀가 예민하고 목소리도 크고 말을 잘해야 찬양할 수가 있는데 찬양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찬양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쉽게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검증이 사실은 지난번에 수련 때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하자는 정도로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는 상당히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김유석 목사

농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것이 말을 못하는 것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피드백이 안 돼서 제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낼 때 어눌한 소리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악기 소리로 덮어주겠으니 안심하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이번 수련회 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하는 장치를 한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악기를 동원하는데 적은수로 만들어야 해서 전자 악기를 썼고 두 번째는 데시벨 미터를 모니터 앞에다 띄워놓고 계속 보게 했어요.

당신들이 소리를 지를 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60~65,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때 7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시간 계속 쳐봤거든요.

그러니 본인들이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눈으로 보니 안심하고 소리를 질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를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구성을 했고 악기를 써보니 베이스 소리와 전자 드럼에 나오는 낮은 음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그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낮은 소리를 듣더라고요.

평소에도 낮은 음을 높은 음보다 잘 듣는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에바다부 예배 때 카혼이라는 타악기를 쓰는데 이유가 낮은 음으로 박자를 쳐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리듬을 느끼고 그 리듬을 가지고 찬양을 수어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데시베 미터를 보여주고 전자기를 통해서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통성 기도에 대한 반감을 많이 없애준 거예요.

이게 여름 수련할 때 한 번 했지만 평소에도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이런 훈련이 계속되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현평생 대학원

이석재 장로

평생대학원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계속적으로 강좌 수와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의 참여가 부족한데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평일 강좌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자가 적은데 이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봄학기 설문 조사를 보면 84%가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는 회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식사도 제공해 주고 강사님들이 수고하니 앞으로 회비를 징수해도 강의를 들겠다는 의견이 70%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서 회비를 2만원정도 받으면 10%, 3만원이면 15%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23년도 가을 학기에는 타교회 성도를 모시기 위하여 교구위원회를 통하여 전도로 활용하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계획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세상 문화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65세 이상으로 경로대학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전교인이 누구나가 강의를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준 장로

평생대학원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수강료가 있었고 코로나로 대면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식사 부분을 제공 안 하다 보니까 수강료 부분이 없어졌는데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수강료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수강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10%에서 15% 정도 인원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준비하고 강사에 대한 사례나 교재를 하려면 수강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명분이 충분할 때 수강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장로

수강료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5% 정도 많게는 적게는 10% 정도가 감소될 걸로 보이나 또 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가을 학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가을 학기가 70주년 기념행사에 너무 묻혀서 나타나

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은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나타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가을학기 500명이 무난하게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아카데미

박옥현 집사님

2023년도 교육 계획안이 현재 김상래 목사님과 이수경 전도사님이 준비해서 담임목사님께 아직 컨펌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준비중이지만 예산을 27일까지 제출해야 해서 일단 담임 목사님께 통과되는 걸 전제로 예산은 수립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가 옛날에 장년 1, 2, 3부로 있을 때는 인식이 쉬웠 별도 홍보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아블로반은 65세 이하, 에스라반은 66세 이상으로 하니 젊은 층인 55세에서 65세 되는 인원이 전혀 유입이 안 되고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아블로반은 30명 수준이었습니다. 30명 수준의 아블로반을 목사님들과 교사들과도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대면으로 바뀌면서 PPT 띄우고 교육 방법을 조금 바꿔서 현재 아블로반에 대면 수업 참여 숫자가 70명 넘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100여 명 넘어서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데 첫째 연령에 대한 홍보와 성경 아카데미 명칭에 대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교회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강사 목사님이 8분인데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4분이고 이분들은 교육 준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로 순서를 감당하며 열심히 하시니 학생들 숫자도 늘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목사님께 검토하는 2024년도 교육 계획안으로 봐도 여전히 8분의 강사분들 중 4분이 교구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함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304호하고 401호 두 군데에서 반을 운영 하는데 교사들 연령이 고령화 되어 교육자료 운영하고 PPT 띄우는 문제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려면 부처장급에 젊은 일꾼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나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말씀 배우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아카데미의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3년으로 올해 끝납니다.

강의 받은 분들한테 설문조사 해본 결과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도 유익하고 본인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것과 월별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니까 말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열의를 다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맞춰서 하되 올해 강사로 부분을 교재하고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회 송영상 장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에서 제자 훈련 교육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자 교육훈련부장

최승민 장로

저희 제자 교육훈련부도 예산안은 좀 더 조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교육훈련부는 교역자분들께서 제자 사역 훈련들을 잘 훈련시키고 2학기 개강이 되어 새 출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자 교육 훈련부나 세움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적 기반을 상당히 잘 구축해 놓아서 새로 부장들이 바뀌더라도 바로 준비한 파일 보며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서 차원에서도 제자 사역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피택이 없었고 내년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전부터 이수경 전도사님이 하시는 1대1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 전체의 훈련 가운데 학점제들이 도입되어서 실시되고 있는데 금요집회 시리즈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리 집사 선출을 하고 명예 권사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대일 양육 과정이 이수경 전도사님이 진행을 잘 시키고 있는데 일대일 과정 특성상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나 새 가족을 통한 홍보 전단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일대일 양육과정으로 많이 보낼 수 있게 하여 일대일 과정이 좋은 양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대일 양육과정은 소그룹이다 보니 다른 반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도원에서 일대일 양육 받은 리더와 동반자들을 모아서 영성 훈련을 가졌었는데 서로 은혜롭고 교감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제자 사역 훈련반과 같은 소규모 훈련들도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택자 훈련이 보통 상반기에 있는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피택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시키고 행정적으로 면접이나 시험, 과제들을 케어해 드립니다

면접 같은 경우 서리 집사님들 임명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심사 광

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교회의 교육과정과 교회의 여러 봉사 가능한 부서를 소개하여서 참여하고 영적 AS도 받을 수 있게 하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승래 목사님 또는 이수경 전도사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기존 해왔던 행사하고 일꾼 선출이지만 이분들이 도전받고 한 걸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부

송영상 장로

제가 한규삼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면담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교회가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타이밍상 70년을 마감하고 이어지는 다음 70년을 성경통독으로 4년 동안 하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중심, 2독할 때는 언약 중심, 3독 4독 때는 또 다른 키워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리딩 지저스 하고 교재를 통합하는 것도 예정은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하게 자체 세미나를 해보는 생각을 하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하고 말씀 주제로 성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중으로는 순모임 교재와 리딩지저스 교재를 통합하여 리딩지저스교재를 통하여 순모임을 하고 새벽기도일정도 맞춰가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는 초기에 저희가 그쪽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선도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홍보도 효과도 있었지만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년 연속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은 총 5,450만원에서 2천만 원은 저희 교회 부담금이고 3,400만원 정도는 리딩 지저스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리딩지저스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홍보하고 자료 준비하고 선물 판촉물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사업 계획을 보시면은 참석인원이 1회 차에는 1,126명이 참석을 했고 2회 차인 올해는 1,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900명 정도 예상하니 내년 예산은 주로 식대 예산중심으로 늘어나고 인원이 500명 늘면 500만원이 더 늘어서 2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총평

세움위원회 위원장

조윤준 장로

세움위원장을 맡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7개이고 그 부서 7개 모두가 특성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특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질감 있는 부서를 7개나 말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걱정한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동역자들로 채워 주셔서 각 부서를 맡으신 부장님들, 교역자님들 또 실행위원들 해서 참 은혜 가운데 잘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서가 많다 보니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경건회를 2번 나눠서 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섬김 부서, 또 교육에 가까운 교육 부서를 그룹으로 나눠서 경건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사실 주제가 워크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한 다 보면 어떤 주제를 주고 심도 있게 토론한 다음에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질의응답하고 결론을 도출시키는 일반적인 워크샵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다른 부서다 보니 까 공감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주제를 주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준비를 잘하시고 사전에 받은 자료를 잘 공유해서 오늘 다 내용을 알고 오셔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씩만 발제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올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와서 생각해 보다 퀄리티 있는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부서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교회가 차원에서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 뒷받침되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기한이나 예산이 마련돼야 되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찬양팀을 설립시키겠다면 그 안이 기존에 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안을 먼저 내시고 그 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악기 같은 것들은 행정위원회 라든지 내지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내년에 딱 올려버리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예비비를 쓴다든지 하는 안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감안하셔서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장님들께서는 오늘 나온 얘기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후속 조치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기도 조윤준 장로